

인형극의 이미지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

A study of Puppet Shows about Formative process of Image

전원우, 전병호
공주대학교

Jeon Won-Woo, Jeon Byung-Ho
Kongju University

요약

현대인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있다.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한국은 각종 미디어경쟁의 각축장이기도 하다. 이에 콘텐츠의 질과 기술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청각적인 측면의 교육기재 또한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형극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까? 인형극을 특수교육이나 유아교육 수업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인형극이 치료기재로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더라도 교육적인 도구로서 인형극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형극이라는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지가 형성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더하여 영상미학의 원리나 이미지구성 원리를 적용하였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인형극을 통해 정서를 순화시키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영상언어를 활용한 이미지 형성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Moderns are contacted with various Media in many ways. Korea is the arena of competition in many kind of Media as a powerful country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n we can realize advanced in the quality of contents and technology.

There are getting various kind of audio-visual teaching method. Then how do the puppet shows approach with what viewpoint? You may find them in the education for the Kids and the Handicapped. You will understand that will be able to attend with a role of a Educational medium as(a method of)medical treatment. On the point of view, I am about to study how to shape into the puppet shows as a traditional medium. And what will be expected much more influenced when accepts principles of Esthetics of an Image?

I expect to purify emotion by Puppet shows to the Moderns who are live in the rapidly changing period situation. I would like to observe about making process of Puppet-show with application of the image language .

I. 서론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로라도 한편 이상의 인형극을 접했다고 본다. 인형극을 보면서 관객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최근 화제를 불러일으킨 영화 "왕의 남자"를 통해서 인형극을 볼 수 있는데 극중 '연산군'은 남사당패인 '장생'과 '공길'의 연기와 인형극을 통해 부패관리들의 비리를 척결하고자 하는 결의와 그로인한 폭정이 시작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아무튼 이 영화는 국내관객 12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많은 국민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였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이 영화에서는 '탈인형'과 '손인형', 그리고 '중국의 경극'까지 이른바 광대들의 행위가 대중여론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오늘날의 TV매체의 효과와 흡사하지 않았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 인형놀이를 접해본다. 지금도

여자아이들은 인형을, 남자아이들은 인형대신 로봇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아침에 방송하는 텔레비전 유아프로그램을 통해 인형극을 접할 수 있고, 경험을 하고 있다.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많지만 관객의 심리를 연구한 공연보다는 공연을 위한 공연이 대다수인 것 같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93개국에 가맹되어 있는 국제인형극연맹에서 하나의 회원국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인형극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는 곳은 정확히 조사할 수 없으나 한국인형극협회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과 교회, 도서관과 같은 기관에 소속된 인형극회가 대규모나 소규모로 활동 중에 있다.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대중매체인 TV나 컴퓨터의 등장으로 다양한 유형의 영상들을 경험하므로 오프라인으로 꼽히는 연극과 인형극은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영상매

체들은 편리성 등의 유익한 점과 함께 TV중독, 컴퓨터중독 등의 해악을 가져오고 있으며, 근대화의 과정 중 속도경쟁이 매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빠르고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이는 대중들의 욕구가 있다는 전제하에, 너무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부분을 리얼리티의 구현이라는 이름으로 여과과정 없이 전달되어지고 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정서적인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소가 많은 오프라인매체로서의 인형극을 통해 어떤 요소들을 통하여 이미지를 형성을 하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인형극

1.1 인형극의 역사적 배경

인형극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출발하였으며, 처음에는 종교 의식의 일부로 사용되었다.(Currell,1985)[1] 인형극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나라 나름대로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만물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애니미즘적 형태와 샤머니즘적 주술을 바탕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형극의 발상지는 동양(인도와 중국)이고 동양에서 발생한 인형극이 한 갈래는 중국을 거쳐서 유럽과 지중해로 퍼졌고, 다른 한 줄기는 동남아 제국으로 퍼졌는데, 이집트에서는 신의 불가사의한 지배력을 믿으며 신상으로서 제단 위에서 인형극이 시작되었으며, 그리스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 부르탈코스 인형극이 전국에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의 인형극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연희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은 무형문화재 제 3호인 ‘꼭두각시놀음’과 무형문화재 제 79호로 지정된 ‘발탈’뿐이며 ‘만석중 놀이’는 1930년대까지 전해 내려오다 소멸되었다. 오늘날 방송매체에 등장하여 우리나라 인형극은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러 인형극회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중의 하나로 대중들과 만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인형극의 발상지인 동양에서보다 서양에서 고전적인 민족 인형극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인형의 실물 자료가 극소수이지만 이를 근거로 하여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나 인형극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심우성, 1998).

1.2 인형극의 정의 및 특징

인형이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이나 동물, 식물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을 모형화한 것이다. 인형극은 배우가 무대에 서기 전에 연출에 따라 대사를 외우고 동작을 익힌 후에, 조명이 있고 관객이 있는 무대에 서는 것과 같이 인형을 무대 위에 등장시

켜 사람이 인형의 움직임을 조정하고 연출하는 것이다. 이에 인형극을 이금숙(2005)은 매력적이고 조형적인 물체인 인형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사람이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하듯이 조종하고 연기하며 이야기를 꾸며나가는 것이라고 하였고, 강인언, 김영숙(1988)은 여러 가지 인형을 만들어 손이나 노끈 막대기에 연결하여 줄거리 또는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는 극이라 하였으며, 박장순(1980)은 무대 위에 인형을 출현시켜 사람이 이를 조종하는 연극의 한 형태이며, 인간과 비인간의 표리상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특이한 공연예술이라 하였다. 또한 안정의(1985)는 극화놀이의 한 형태로 무대에 사람이 아닌 인형이 등장하여 연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김상수(1983)는 인형극의 장점을 유아들에게 친숙해지기 쉬우며 창작정신이 강하고 유아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형극은 유아들 상호간에 가장 친근감 있는 교수학습 매체라고 하였다.

2. 유아들에 대한 인형극의 교육적 가치

유아들에게 익숙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형은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교육적 교구로도 활용되어 왔다. 유아학습과정에 적용되었던 인형극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10여년동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삼성, 1998;김용숙, 1996;김현경, 1990;서경희, 1998). 아동들의 직관적 사고, 상징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등의 특성은 인형극을 통한 학습에 유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인형은 유아의 정서에 친숙하고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수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첫째, 인형극은 유아들에게 인형극을 교육하는 기능이 있다. 셋째, 인형극은 유아들에게 학습내용을 교육하는 학습도구의 기능이 있다. 넷째, 인형극은 유아들에게 인형극 매체를 통해서 개인적인 카타르시스는 물론 집단 카타르시스의 효과를 얻는 치료기제의 기능이 있다. 이처럼 인형극은 교육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교육활동으로 다음과 같이 교육적 가치를 제시했다[2].

인형극은 집중력을 높여준다. 실제 유아의 집중시간은 5분내외의 주의력을 보이나 반복되는 동작이나 흥미있는 매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10-15분 정도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다. 인형극의 연희성과 오락성이 유아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다양한 움직임과 변화가 유아들의 시선과 주의를 집중하기에 충분한 요지를 갖고 있다.

3. 교육공학에서의 시청각적 요소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시청각 매체가 발달하고, 전쟁 중에 교육용 영화가 군사훈련에 효과를 거두게 되자 대학을 비롯한 각급 교육 현장에서 영화나 교육텔레비전 등과 같은 시청각 매체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시청각 매체는

시각 매체에 비해 보다 더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었다[3].

3.1 시청각 교육이론

교육공학에 대한 보다 초기의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해 준 것은 1900년대 초반부터 대두된 시각교육 및 시청각 교육론이다. 시청각 교육 이론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때 언어를 위주로 한 추상적인 자료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Hoban(1937)은 시각적인 자료는 학습자의 바람직한 학습 태도를 형성하게 하고 학습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자극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체성의 수준에 따라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실물, 모형, 필름, 입체도, 슬라이드, 회화사진, 지도, 도표, 언어 등의 순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구체성이 가장 높은 것은 실물이고, 회화사진, 지도, 도표, 언어 등의 순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구체성이 가장 높은 것은 실물이고, 추상성이 가장 높은 자료는 언어이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인형극의 구성요소는 연극의 요소와 유사하다. 우선 무대가 필요하고 조명, 음향, 등장인물 즉 인형과 각종 소품들을 필요로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관객이 빠지면 안되겠다. 그렇다면, 인형극은 이미지나 의미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가를 알아 보겠다.

1. 인형극에서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가?
2. 인형극의 이미지는 어떻게 생성되는가?
3. 극에 대한 관객의 의미해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2006년 4월에 있었던 갈마도서관 인형극회의 “빨간모자” 공연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조형적인 물체인 인형에게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는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어떤 요소들이 인형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IV. 수용자 분석

1. 연구대상 : 어린이집 아동(3세~7세), 보육교사

2. 인형극 관객에 대한 영향력 관찰

2.1 인형극은 관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2 어떤 요소들이 관객의 심리변화를 유도하는가?

2.3 인형극 관람 후 관객들의 행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인형극의 특성상 관객에게 정서적 발달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인형극이 권선징악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면에서 교육의 효과가 있다.

무생물인 인형의 연기를 통해 관객자신에게 투영하여 인형의 이미지와 관객이 동일화 하려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에는 인형, 조명, 음향효과, 연기자의 목소리 구연 등의 요소가 관객의 심리변화를 이끌어가며, 인형의 이미지에 관객의 심리를 투영시켜 등장인물들과 동일화 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인형극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이벤트이다. 그러므로 공공장소에서의 규칙 익히기와 이야기의 프리뷰(pre-view)를 통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지 미리 상상하는 것을 사전활동으로 하고, 사후 활동으로 일기나 감상문을 혹은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할 수 있다.

3. 인형극의 이미지화 과정에서 나타난 요소

3.1 연구문제에 대해 영상의 각 요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3.2 연구문제에 대한 수용자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3.3 연구문제에 대한 사후활동에는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관객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소등 상태에서 무대 주조명인 롱핀(long-pin)조명의 조절로 시간과 공간적인 표현을 전달할 수 있으며, 색의 조절을 통하여 감정이나 상황 연출도 가능하였으며 등장인물들에게 빛과 색상의 조절로 강·약·고·저까지 전달할 수 있으며, 인형극을 이미지화하는데 있어서 응답자의 67%가 빛과 조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관객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는 34%는 공연시간이 작용을 한다고 하였으며, 30%는 조명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고, 36%는 인형이 등장하는 것이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다.

인형극은 교육, 언어발달, 정신건강, 치료 등의 분야에까지 활용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4]. 이런 관점에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형극의 교육적 가치를 깨닫고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인형이라는 매개체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학습 혹은 정서적인 문제를 지닌 아동에게 치료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인형극이 미치는 영향중 정서발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100%의 답변이 있었다. 아동관객들은 인형과 동일화 시키려는 심리의 작용으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다.

인형극 관람 후 작은인형(피펫)을 이용해 간단한 동화나 짧은 이야기로 동화나 이야기를 들려주며 유아들의 행동 또는 생활에서 잘못된 버릇을 수정할 때 이용할 수 있고 유아들이 직접 인형극을 보고 함께 체험함으로써 인형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감성과 인지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유선택 활동 시 역할놀이와 인형놀이의 활성화로 놀이의 확장이 가능하며 사회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V. 결 론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는 시에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시어를 통해 여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인형은 극을 통하여 인형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인형극의 이미지 형성은 영화와는 달리 고정된 구도에서 모든 의미를 이끌어 내야 하므로 연극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형극은 연극이나 영화와는 달리 무생물 요소인 인형을 등장시킴으로써 관객에게 보다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고정된 인형의 이미지가 아닌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로 변화하여 시각적, 청각적인 요소로써 구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결과를 이끌어낸다 할 수 있다.

교육현장인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수업시간에 교육의 일환으로 인형을 활용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으며, 춘천인형극제와 같은 대규모 행사가 저변확대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형극은 이론적인 근거가 다른 예술분야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며 단순히 공연을 위한 공연준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0과 1로 짜여진 경직된 형태의 디지털시대에 인형의 이미지가 가미되어 정서발달과 치유, 그리고 교육도구로 인형을 활용해 인간에게 보다 인간다운 심성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기대하며, 여러 인형극 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로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재의 인형극을 더욱 발전시킨 형태의 진보적인 교육, 문화 콘텐츠로서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 참고 문헌 ■

- [1] 인형극의 매체에 관한 미학 연구/권계희(2003,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인형극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이금숙(2005, 전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백영균의 공저(2003, 학지사)
- [4] 특수교육연구 제 4집(1997, 국립특수교육원)